

1933년2월26일 4면 2단

哲學과 文學

생각나는 대로의 斷片(3)

申 南 徹

哲學에는 明朗성이 업다. 哲學的 科學으로서의 世界觀-唯物論은 普通의 意味에 잇서서 明朗성이 아니라 明確성을 가지고 있다. 그것은 論理的 確實性이다. 哲學은 새삼스럽게 社會的 意圖를 □□할 □□를 가지지 안었다. 哲學은 變革의 世界觀說이나 □□로 哲學은 文體的 □□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. 그러나 그것은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이 아닐 것이다. 칸트나 헤-겔의 □□은 實로 □□하다. 文學的으로 그것을 □□하는 이가 잇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그 □□를 차저낼 것이다. 그러나 그들의 著作은 哲學에 잇서서의 □□으로 움지기지 못할 地位를 가지고 있다. 이에 反하여 □□라이의 著作은 □□에 잇서서 꼭 □□하다. 哲學에 잇서서의 文學的인 作品이라고 하겠다. □□哲學的 著作이 文學的 □□으로 씨여잇는 시대는 로맨틱할 새가 만타 □□타이에 잇서서도 로맨틱한 色彩가 □□하다. 哲學에 로맨틱한 色彩가 잇슬 새는 普通 『레-벤』(人生)이라든가 美的 感性이라든가 又は 思辨的, 宗教的인 要素가 包含된다고 생각킨다. 文學的 哲學이라고 하는 수가 잇는 것도 그 까닭이라 하겠다. 이 文學的 哲學에 對하여 哲學的 文學이라는 것이 잇술 수가 있다. 쇠테의 『파우스트』라든가 니체의 □□作品 又は 하이네의 □□ 등은 이 部類에 지버너힐 수가 잇다고 생각한다.

쇠테는 狂風□□ 등의 로맨틱한 『후마니테트』의 問題를 □□ 『파우스트』로 씨 表現하였다. 그것은 文學的 作品이나 그러나 그것은 哲學的으로 當時의 感情的 汎神論的 意識을 담은 것이다. 니체의 作品은 個人主義 哲學的 室上化를 꾀한 것이다. 佛蘭西 革命이 發見한 個人의 自由는 니체의 超人哲學에서 그 最高□을 싸았다. 하이네의 □□인의 X X의 氣分의 表現이다. 더욱 人間을 諷刺하면서도 그 속에서 차저 보려는 宗教的 情緒는 그로하야금 社會革命을 □□은 否認하고 永遠한 □□을 찾게 하였다. 하이네는 『革命의 子』이 었든 것 가티 보다 더운 『反革命의 子』이였다. 以上の 三人의 文學的 著作은

單只 所謂 文學的인 것이 아니다. 哲學的인 內容을 가지고 있다. 哲學的이라고 하는 點에 그들은 世界觀的이고 統一的인 □□을 가졌든 것이다.

X

哲學이 究極의 目標로 하는 것은 『眞』이고 □□의 그것은 『美』라고 할 수 있다. 哲學은 『眞』의 發見이고 □□은 美의 □□이라고도 한다.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냥 無□□으로 受入할 수는 없다. 自然科學은 自然의 『眞』되는 所以然의 法則을 發見한다. 그러타고 自然科學이 卽 哲學이라고 할 수 없다. 哲學이 自身을 哲學的 科學으로 主張하라면은 헤겔에 依하면 體系的으로 □□하는 것 卽 具體的으로 自己의 안에 自己를 展開하고 統一하고 □□하는 全體性의 □□이 아니면 아니 된다. 그러한 □□에 잇서서만 眞理는 動的으로 發見된다. 아니 發見이 아니라 □□되는 것이다. 『眞』의 發見이라고 했다고 □□를 發見해야 누구에게 주든지 다 가티 고맙게 使用할 수 잇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. 티겔트는 『世界□ (Weltall의 體系로서의 哲學)』이라는 말을 한다. 勿論 그 가티 말할 수 잇다. 그러나 哲學은 體系라는 것을 形式에 依하여 世界 全에 強制할 수는 없다. 릭켈트의 이른 바 哲學은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. 哲學은 헤-겔 가티 그러나 더욱 唯物的으로 理解될 쎄 吾人에게 가장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眞理의 體系를 준다. 쪽 그와 가티 □□ 又は □□의 作品도 어셔한 永遠한 美的 理想을 實現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헤겔에 依할 것 가트면

(一) 自然產物이 아니라 人間의 行爲에 依하여 實現될 것

(二) 本質的으로 人間을 爲하여 □□된 것 더욱 人間의 美的 □□을 爲하여 만든지 적든지 感性으로부터 가져 온 것

(三) 自身이 한 개의 目的을 가진것 (헤-겔 □□ 『□□』)이다. 그리하여 그 行爲라는 것은 □□의 □□的 □□이고 그 □□的이라는 것은 □□에 對한 合目的的인 『러벤되히카잇』(□□)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. □□은 單只 自然의 □□도 아니고 自然을 理想化하는 것도 아니다. 이 두 가지 學說-自然□□과 自然理想化說은 □□□에 잇서서 對立的 □□□□하고 잇스나 잇는 것이나 □□의 □□한 本質을 □하는 合目的的 □□의 感性的 表現-□□이라는 것을 이져버리고 잇다. □□은 人間行爲에 依한 合目的的 □□이다. 이 □□의 形式은 □□에 싸라 다르고 內容에 依하여 □□된다. □□的으로 美的 □□을 □□할 쎄는 □□가 되고 □□이 되고 □□이 되고 한다. □□에 許할 쎄는 □□이 된다. 이 두가지 美的 □□은 □□□□이라고하여 헤-겔以來 今日까지 □□□□ 等の □□□□과 區別된다. 그러나 美的 □□의 內的 欲求를 文字에 依하여 表現되라고 할 쎄 그곳에는 文學이 成立한다. 文學은 美的 □□의 綜

합의 表現으로서 文學을 通하여 나타날 旣 그리하여 合目的的으로 □□된 旣 成立된다.